

강은하-안녕하세요?

자녀의 진로 지도에
대해 배우는

진로 교육의 시간.
진행에 강은하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대성-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대성입니다.

강은하-선생님, 저희가 방금
그 영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을
보았는데요.

대학생의 **40%**가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등 떠밀려서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대성-진로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발생된

정말 가슴 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2017년도에 전국 대학생
의식 조사가 있었어요.

이때 결과를 보면 대학에 입학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입학했다는 답변 비율이
36.6% 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보다 **10년** 전
데이터를 보면

2006년도의 조사에서도
대학 진학 이유를

'취업'이라고 응답한 분들이
거의 40%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볼 때
우리 고등 교육

고학년의 취업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학 진학에 영향을

아주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은하-취업을 고려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10명 중의 4명 정도가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대성-네, 맞아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전공을

그나마 살펴봤더니 사범 계열이
거의 5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측하셨겠지만
예체능 계열이 그다음 51%

박빙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학 계열로
약 50% 정도가 나왔죠.

반면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전공은 인문 계열이 있었고요.

이어서 사회·과학 계열, 그리고
이공 계열 순으로 나왔습니다.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2,162명을 대상으로

선택하고 싶은 전공을
묻는 질문에는

21%가 예체능 계열이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이밖에 이공 계열, 그다음에
의학, 보건 계열 이런 순서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은하-왜 인문 계열은
인기가 없는 걸까요?

이대성-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인문계 기피 현상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인문학 계열의 전공은

하나같이 직업으로 뚝떨어지는
그런 학문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강은하-사실 기초 학문일 수
있는데요.

이대성-그렇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하고

전 인류로 봤을 때도 이만큼 중요한
학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은하-네, 맞습니다.

이대성-근데 당장 학생들이
진로상에서 취업을 고려할 때

인문학과 연관된 전공들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은하-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만족도가 높은 전공으로

사회복지, 간호, 의료, 보건
그리고 유아, 예체능,

사관, 경찰 등이 꼽히는데요.

이렇게 순서대로 꼽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이대성-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의 그런 문제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계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전공 자체가

진로의 4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은하-저 기억납니다.

4요소가 업종, 직업, 기업,
학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방금 거론한
그런 전공들이

이 4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대성-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면

경찰 아니면 보안이라고 하는
그런 관련 업계와

그리고 경찰관이라는 직업
그리고 경찰서라는 관계 기관과

이와 연관된 학업,
즉 경찰학과로

명확하게 진로의 4요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한번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직업인데요.

사회복지라는 관련 업계와
업종과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과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라는
관련 단체 기관과

그리고 이와 연관된 학업인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4가지 진로 요소로
딱 떨어지는 것이죠.

강은하-이렇게 업종,
직업, 기업, 학업

이렇게 진로의 구성 4가지 요소를
잘 미리 정해서 준비를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선택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대성-네, 그게 바로
진로가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

입학이 먼저 선행된 것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국내 대학생들이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학생 유형별로 아주 짧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대성-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유형으로
제가 학생을 나누어서

케이스 별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전공은 마음에 드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죠.

이 유형은 진로의 구성 요소를
모르고 있는 학생이죠.

두 번째는 전공은 무시되고 다른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 학생이죠.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전공을 무시하고

계속 다른 진로를
찾고 있는 학생이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다수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예를 들어서 휴학을 하고
재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진로를 선택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유형의 특징은
수능 점수에 의해서

입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수 전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케이스인데요.

복수 전공 등의 방법으로
다른 진로를 찾고 있는 대학생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전공과 진로가
연결이 되고 있는 학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딱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는데
전공과 진로는 마음에 들지만

나 자신이 깊숙이 개입이
안 되는 거죠.

이 전공을 하면 이 진로가,
예를 들어서 직업이 명확하지만

그 진로를 과연 나하고
맞출 것인지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공도 무시되고

그리고 진로도
찾지 않은 학생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학생인데

이런 친구들은 진로 교육보다는
삶에 대한 동기 요인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하-진로가 정해졌다,
아니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짚어 주시네요.

다음 계속 넘어가 볼까요?

이대성-네, 여섯 번째 유형은
일단 대학에서 전공 과정을

이수를 하고 무조건 석사로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입니다.

학력을 취득하면서
실직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고학력으로서 뭔가 자기의
자존감을 대변하려고 하는 학생

전공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마는
제가 경험한 이런 유형들은

자연과학, 기초과학 계열에서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공과 진로의 4요소가
동일한 학생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의해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죠.

이럴 경우에는 전공과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전공은 무시하고

수능을 재차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여기에는 편입 준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진로를 새롭게
세팅하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는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진로 결정도 없고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대학에 와서 강의 들어 보니까
'어, 이 전공이 뭔가 나하고 맞다.'

이런 유형이죠. 그래서
교수자의 교수법

학문에 대해서 반응 중인
학생이니까 이런 학생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진로
모두에 철저하게

무관심한 학생이
간혹 있어요.

대학에 왜 왔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경우는 다양하게
특징이 나타납니다.

부모님의 재력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창업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대학에
온 것이라든지

어떤 특별히 본인이 의지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도 전향적으로
상담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은하-네, 10가지 유형에 대한
학생 유형을 좀 살펴봤는데요.

들으면서 과연 저는 몇 번째
학생이었을까 짚어봤는데

다행히 일곱 번째
진로 기반의 진로를

조금 일찍 정해서 준비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성-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강은하-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염두에 뒀야 할까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해당이 되시지만 입시 관련
컨설팅 회사에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옵니다.

입시 관련 컨설팅 회사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공히 아마 정보를 공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전공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직업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전공을 고르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첫 번째, 업종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강은하-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대성-그러니까 모든 업종에
전부다 존재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인프라 베이스드 잡'
영어로 'IBJ'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들이

회계, 인사, 총무, 비서
이런 직업들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주 전공을 직업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회사가 속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택하면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인프라 베이스 잡이죠.

모든 회사, 모든 업종에 존재하는
직업이 회계 아니겠습니까?

강은하-그렇죠.

이대성-이럴 경우에는 주 전공은
경영 또는 회계를 해 주셔야 되죠.

직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수 전공은 업종을
고려해야 되니까

식품 관련으로 정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것 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돼요.

해당 업종에만 존재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타 업종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직업이죠.

이걸 이제 인프라
베이스드 잡이 아닌

이것은 '비즈니스 베이스드 잡'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BBJ'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직업들은 기술직이죠.

아니면 의료·보건직
뭔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전문지식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직종들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 전공은 업종을
중심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은 반대로 직업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 회사의
품질 관리는

비즈니스 베이스드 잡이죠.

그런데 식품 회사의
품질 관리를 하다가

반도체 회사의 품질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강은하-그렇죠.

이대성-그래서 해당
업종에만 존재하는

이 비즈니스 베이스드 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식품 회사의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 전공은 업종을 고려해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식품 관련을 주 전공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예를 들어서

품질 같으면 품질과 연관된

복수 전공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방법인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대학생이라면

전과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진로의 4요소를

고려해 주시는 거죠.

강은하-선행 작업이 필요하네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진로의 4요소를
고려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전과를 하든지
복수 전공을 하든지

아니면 자율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별로 자율 전공
학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힘을 얻어서
전공을 선택하면

큰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은하-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면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요.

또 사회인으로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대성-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전공인 '학업'이라는 게
진로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진로 교육의
성공 요인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진로 구성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전공을 보살피면

정말 외로운 대학생, 아니면
힘든 대학생을

사전에 감안하고
통제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은하-이렇게 해서 학부모를 위한
자녀의 진로 교육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말 많은 내용을, 꿀 팁들을
많이 알려 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이대성-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아나운서

우리 진행자 선생님하고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은 걸 공부했고요.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어요.

부모님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

그것이 부모의 생존 이유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의 미래형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 없이 그리고 교육 없이
어떻게 학교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관계된 모든

교육 근본의 본질이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모든 고민을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들 혼자 짊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멍멍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 다시 한 번
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 번 들어보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저의 조그마한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하-좀 구체적으로 지름길을
아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가는 방법을 그동안
알려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직업을 가진
직업인이지만

저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더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선생님께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대성-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앞으로도 계속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성-네, 감사합니다.

강은하-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